

# 절망은 神의 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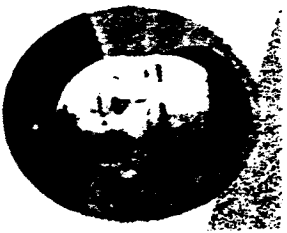
## 여경의 연애

國民日報社

### 목 차

7	“나만 잘살려줬다면 돌 던져라!” .....	최태섭
21	한자 속에 나타난 천지창조 .....	임번삼
37	“내가 성지 감당할 수 있을까?” .....	김봉화
59	순교자의 후손—주불 높이디가 죽은 자 .....	주광조
75	종교적 방황에서 만난 「창조과학론」 .....	원동연
83	지하에 묻혀있던 성전 지상에 드러나다 .....	이강평
99	양심과 봉사의 「로터리맨」 .....	오재경
115	한손엔 성경, 한손엔 호미 .....	김종일
131	무너지는 소리 .....	김성일
139	파란의 삶, 한국관 25시 .....	전영규
172	절망은 신(神)의 출발 .....	박성수
187	바리불의 법칙 .....	류태영
201	애연가에서 금연운동기 되다 .....	조규철
218	크고 부드러운 하나님의 손 .....	김태열
231	교만 속에 들이닥친 죽음에 고 .....	성인화
239	부부선교사의 꿈 .....	주준희
257	추억의 종소리 .....	이정재
269	어떤 부활 .....	김복남
281	괴화를 맹신한 교만 .....	김정옥
291	벼랑의 노래 .....	김민식

한손엔 성경,  
한손엔 호미



김종일  
(기나인농군학교 이사장)

## 한손엔 성경, 한손엔 호미

김종일

현재 우리 사회에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과소비라고 말할한다. 몇천만원짜리 코트에 유치원의 뷔페 수료식, 70만원을 호기하는 구두... 그런 가운데 현대인들은 노동에 대한 가치관을 상실하고 흥청망청대고 있다. 이런 모습을 보면 나는 소천하신 선친 김용기 장로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아버지가 살아계셨으면 무엇이라고 할까. 쪼런쪼런 한 아버지의 몸성이 시치풍조를 부추기는 텔레비전 산업광고 속에서 금방 뛰어나오는 것만 같다.

나의 인생은 선친이자 가나안농군학교 설립자인故 김용기 장로와 결코 분리될 수 없다. 선친의 신앙과 사상은 올해 회갑을 맞는 내 삶에 채질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아버지는 평소 『일하기 싫어하거나 먹지도 말게 하라』는 성경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 말씀을 임버릇처럼 외치셨다.

여기에다 늘 성경암송을 시키셨고 기도를 가르면 무섭게 회초리를 드셨다. 밥그릇에 한톨의 밥일이라도 남길 수 없었다. 어린시절의 아버지는 내게 너무나 엄한 존재였다.

우리 집안은 조부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 난모 태신앙을 가지고 태어났다. 출생지는 선친의 1차 개척지인 경기도 양주군 소재 봉안이란 곳이었다.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힘든 노동에 시달렸는지 집안을 벗어나고 싶었던 것이 솔직한 심경이었다. 남들처럼 뛰어놀고 싶어도 논매기 풀뽑기 소먹이기가 언제나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친구들이 찾아와 도 일을 시키실 정도였다.

조모가 세운 봉안교회에 다닌 나는 중학교 입학시험을 앞두고 정말 심각하고 간절하게 기도했다. 이 시험에 떨어지면 일민하다 죽을 것 같았기 때문이다. 시험을 치르러 가는 기차 안에서 내내 기도만 했다. 「제발 합격되어 일에서 벗어나게 해주옵소서」라고.

합격의 기쁨은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최초의 감격을 맛보게 했다. 사실 중학생이 된다는 기쁨보다 더 큰 것이 아버지 절을 떠나도 된다는 해방감이었다. 아침기상 때부터 밤 잠자리에 얼마나 잔소리를 많이 들었는지 하속을 하는 하루하루가 「별세계」였다.

중화2학년 때 해방을 맞았다. 아버지는 현재의 은평구 구기동에 제2차 개척지를 마련하고 이주하셨다. 나는 예전 생활로 돌아가야 했다. 당시 이 지역은 모두 지두밭이었다. 자두는 꼭 내가 방학을 시작하는 때부터 알맞게 익어 여름방학 내내 자두를 따고 팔며 보냈다.

학교를 졸업한 뒤 대학진학을 하자마자 6:25가 터졌다. 화도병으로 입대했다. 당시의 군생활은 선임자들의 황포가 싹해 여간 힘든 것이 아니었다. 그래도 아버지가 시키는 노동일보다는 나았다.

제대가 가까워져 휴가를 나온 나는 3차 개척지인 용인을 방문했다. 군대의 기상시간은 6시인데 이곳은 4시였다. 당시 50여명이 공동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모두 아침에 1시간동안 아버지의 인도도로 예배를 드렸다. 이어 애국가를 4절까지 부르고 구보를 시작했다. 군대에서도 구보에는 자신이 있었는데 이곳에선 내가 못따라갈 정도였다.

제대한 후에도 다시 이 속에서 생활할 것을 생각하니 아찔했다. 제대를 포기하고 2년 1개월 동안 복무를 연장했다. 아버지는 농촌계몽과 농민운동에 사명을 갖고 계시지만 내가 억지로 그것을 따라가는 것은 무리라는 판단이었다.

1955년 제대하고 온 곳이 4차 개척지인 현재의 제1기나안 학교인 경기도 하남시 풍산동이다. 아버지는 내가 올 때까지 개발을 보류하고 계셨는데 제대 3일째 되던 날은 식구와 동생들을 불러 모은 뒤 모두를 대표해 선서를 하려고 명령하셨다.

선서내용은 「나는 죽든지 살든지 아버지의 뒤만 따라가며 농업 이외에는 다른 직업을 갖지 아니하며 일생동안 개척자로 보내겠습니다」라는 「개척자의 선서」였다.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아버님, 저는 죽어도 못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눈빛이 싸늘해지셨다. 나는 내친김에 속에 담겨 있던 말들을 쏟아놓았다.

「개척자의 선서」를 요구한 아버지의 요구를 단호하게 거절했다. 표정이 싸늘해지는 것을 금방 느낄 수 있었다.

「우리 농민들은 지금까지 술한 취취와 억압, 빈곤 속에서 살아왔다. 누군가가 이들을 돕고 아픔에 동참해야 한다. 그

해서 난 20세에 농민운동에 뜻을 두었다. 농촌문화가 형성되려면 적어도 1백년은 걸린다. 나와 나와 네 자식까지 해야 해.

나같이 신앙양심도 정의감도 없는 놈은 필요없으니 당장 나가라. 난 나같은 아들 없어도 되니 아버지라고도 부르지 말아라!

추상같은 명령이었다. 난 아릴 때부터 두 가지 가정교육을 집중적으로 받았다. 첫째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 것과, 둘째는 부모를 공경하는 삶을 살 것이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부지의 인연」을 꿰고 하시니 눈물을 삼키며 선서를 할 수밖에 없었다.

「개척자란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길 때 큰 것을 얻는다. 우선 이것을 보고 네 동생들도 교육시켜라! 아버지가 주신 노트에는 「기나이의 개척자 가정수칙」 27가지가 적혀 있었다. 그것은 머리를 짧게 깎는 것에서부터 철저히 금욕을 요구하는 사항이었다.

이때부터 본격적인 「노동의 고생」이 시작되었다. 주로 고구마와 무를 재배했다. 고구마 50가마, 무 20가마를 트랙에 싣고 가서 내려 놓으면 추운 겨울에도 땀이 축축했다.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찬송하고 기도하자고 했다. 즐겨부른 찬송은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만도강산에 일하러 가세」였다.

새벽 4시면 어김없이 「개척의 종」이라고 이름붙인 종을 30번씩 쳤다. 이것은 육체의 잠, 민족사상의 잠, 심령의 잠을 깨운다는 의도였다. 그리고 잔디밭에 엎드려 1시간씩 기도하고 애국가를 부른 뒤 근로, 봉사, 회생을 큰 소리로 외쳤다.

농한기인 1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의 관주군 일대 16개면

을 일일이 돌며 복음전도 및 농촌계몽을 떠났다. 어느날 아버지는 그 계획을 말씀하시며 시선을 끌기 위해 악대를 조직하고 하셨다. 그런데 악기 살 돈이 없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 믿고 기도하면 응답을 받는다. 우리 모두 기도하자꾸나!

우리 형제들은 반신반의하며 기도했다. 그런데 기도가 끝난 후 갑자기 어떤 분이 오시더니 아버지께 전도사업에 쓰이라고 「30만원」을 놓고 가셨다. 「이것 보아라. 하나님께서 담장을 주셨다」 큰 북과 트럼펫을 사왔다. 우리는 음악에 대해 전혀 모르는 상태였다. 아버지는 「악기를 만든 사람도 있는데 만들어 놓은 것 불지도 못하느냐」며 무조건 연습을 하라고 하셨다.

고구마만 먹고 낮에는 죽도룩 일을 한뒤 저녁에는 나팔부 연습을 했다. 4부자가 모여 연습한 것을 맞춰보는데 온 동네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농촌계몽을 떠났다. 한바탕 찬송을 연주해 사람들이 모여들면 아버지는 하늘나라 복음을 증거하시는 한편, 생활개선, 병충해 방제 등을 가르쳤다. 이것을 「영육생활강연회」라고 부르셨다. 나는 처녀들이 오면 외모 때문에 부끄러워 고개를 들지 못했다.

마을을 순회하며 음악연주의 함께 전한 「영육생활강연」은 큰 효과가 있었다. 관주군에 사는 사람치고 이 나팔소리를 듣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였다.

교회당을 빌려 저녁시간에 강연회도 가졌다. 이때 우리는 교회의 신세를 지면 안된다는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 식량인 고구마를 한집씩 지고 다녔다. 이때 부친이 강조한 내용은

대략 이렇다.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문제는 자기 하기에 달려 있다」 「내집부터 잘하자」 「외모 단장 말고 마음 먼저 아름답게 단장하자」 「억지로 못살게 하지 말고 억지로 잘살게 하자」.

봄이 되자 아버지는 「겨울에 쉬었으니 이제 일하러 나가자」고 하셨다. 기가 막혔다. 겨우내 고구마만 먹고 농촌 곳곳을 다녔는데 쉬었다니... 동생인 범일이가 대들었다.

「아버님, 밥이나 좀 먹여 주시면서 일을 시키세요. 고구마만 먹고 버티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야, 이놈아 내가 쌀이 없어서 너희들 고생시키는 줄 아니. 젊어서 하는 고생은 돈주고 못사는 법이다. 쌀밥 먹고 불고기 먹는 연습은 안해도 돼. 너희를 사랑하기에 고구마만 주는 것이다」

사랑하기에 고구마만 준다니 할말이 없었다. 식사 한끼 하는데도 식사노래를 4절까지 부르고 「북한 동포에서부터 반만년 역사」까지 등장하는 식기도까지 마치려면 족히 30분 이상 걸렸다.

1957년 5월쯤으로 기억된다. 개척 초기라 무척 어려웠다. 식량이 다 떨어져 저녁 먹을 것이 없었다. 점심식탁에서 아버지는 「하나님 일을 하고자 하는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는 기도를 간절히 하셨다. 그날 오후 군수가 인사처 틀렀다며 보리쌀 3키마를 갖고 왔다. 나는 이것을 보며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의 함께 하고 계심을 확연히 볼 수 있었다.

나는 결혼 적령기가 되었는데 도대체 시집을 오겠다는 여자가 없었다. 하기가 이런 고된 일을 하는 집안에 들어오려

하지 않는 것이 당연했다. 선을 40여번이나 보았지만 매번 퇴짜를 맞았다. 농촌운동에 관심이 있다고 말했다가도 한달을 넘기지 못했다. 더구나 아버지는 이곳에서 1년이상 견디는 여성을 만며느리로 삼겠다고 공언하신 터였다.

나중에는 선을 보지 않고 특별 지원자를 찾기로 했다. 여기서 현재의 아내인 윤숙종 전도사(57)를 만났다. 그녀는 농촌계몽에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있었다. 수련기간이 6개월 지난뒤 약혼을 했고 1년을 채운 뒤 결혼식을 올렸다.

결혼식도 아버지의 제인에 의해 삼각산 꼭대기에서 양가의 친지 친구 교회대표 1명과 주례 등 모두 9명만 참석한 가운데 예배식으로 치뤄졌다. 「하나님이 보시는 가장 가까운 곳에서 삶의 근원인 땅을 던고 결혼식을 올리라」는 뜻이었다. 이 일로 처가집과는 서먹한 관계가 되었지만 66년 아버지가 「막사이사이상」을 수상하면서 양쪽 집안이 서로 풀어진 다.

59년 육군사관학교 졸업식에 초빙을 받아 다녀오신 아버지는 「농군사관학교」를 세울 계획을 본격적으로 하셨다. 그러나 명친관계로 행정부처와 논의가 있다가 62년 2월 1일 「가나인농군학교」로 정식 개교했다.

「육군은 탱크, 공군은 비행기, 해군은 군함으로 외적을 물리치고 농군은 쉐이와 삼으로 가난의 적을 때려 부수자」는 의도였다.

교육이념은 근로, 봉사, 희생이었는데 이것은 결국 「십자가의 정신」이었다.

가나인농군학교가 개교한 1962년 나는 장로회신학대학에 입학했다. 성직자가 되겠다는 의도보다 신앙을 생활에 적용

시키기 위해 실천신학의 필요를 느꼈기 때문이다. 더우기 농촌운동을 하면서 농민들이 성서적 신앙관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이었다.

신학에 몰두하면서 아버지의 뜻과 정신을 점점 이해하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사명감을 갖게 되었다.

그동안 미지못해 했던 일들도 성경의 깨우침을 통해 저발적으로 할 수 있었다.

5.16혁명 후 당시 박정희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이 우리 농군학교를 방문했다. 같이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박 의장이 『빵이 맛있게 구워졌군요』하면서 빵을 집었다. 그러자 아버지는 『각하, 여기서는 먼저 기도하셔야 합니다』라며 막았다. 그리고 기도하셨는데 얼마나 기도가 길었는지 나중에 경호원이 옆구리를 쿡쿡 찌를 정도였다.

기도 후에도 구호제창, 식탁감사의 노래까지 한 후 식사를 시작했다. 이날 『식사순서』는 다음날 신문에 가십거리가 될 정도였다. 그러나 박 의장의 이곳 방문을 계기로 농촌진흥청이 생겨났고 새마을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사실 우리 가나안농군학교의 교육방법은 전근대적이라는 비난과 조소도 있었다. 또 기독교 신앙을 강조해 거부감을 준다고도 했다. 그러나 우리는 누가 뭐래도 『한 손엔 성경, 한 손엔 호미』를 주창했다.

학교이념이 성경에서 나왔듯 신앙교육은 결코 배종을 수 없었다. 교육을 기도로 시작했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마태복음 6장 33절) 『인자가 온 것은 성금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마태복음 20장 28절) 『한 일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

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나니』(요한복음 12장 24절) 등의 구절을 중심으로 믿음생활을 강조했다.

1966년 일본 동경에 건너가 『아시아농촌지도자양성소』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그해 아버지는 막사이사이 이상 사회공익부문을 수상하셨는데 수상식에 참석하려 가시는 중에 동경에 들르셨다. 나는 부랴부랴 한국을 떠날 때 입었던 농군학교정복과 고무신을 찾았다. 아버지는 평소의 내 양복차림을 보시면 불호령을 내리실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다.

유학할 때 복장과 신발은 자유롭게 해달라고 부탁드렸다. 그런데 『년 주체성이 없으니 유학가지 말아라』고 하셨던 분이였다. 공항대합실에서 동생과 함께 온 아버지를 만났다. 3부자가 특이한 복장에 모두 고무신을 신고 있어 주위사람들이 물려와 구경했다. 아버지는 『한국에 할 일이 많으니 유학을 중단하고 돌아가자』고 하셨다. 거역할 수 없었다.

1968년부터는 군인교육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이것은 한 문제사범이 농군학교에 보름간 입교, 변화받았던 것이 계기가 되었다. 더구나 1965년 이스라엘과 이집트간에 있었던 6일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이긴 것은 무기에서 이겼다가 보다는 정신전력이 앞서 이겼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보편화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때부터 나는 군부대를 다니며 기독교신앙과 국가관, 바른 가치관에 대해 강연했다. 이것은 지금까지 계속되어 그동안 군부대에서만 4천5백여회를 기록했다.

1965년 가나안농군학교 축사에 원인모를 화재가 일어나 애써 키우던 토끼 닭 등 수천마리가 불에 타 죽었다. 정신이 아

득했다.

『하나님, 주님의 백성들이 왜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합니까,』

고생하는 가운데 이런 일까지 닥쳐오니 하나님께 불평이 터져 나왔다. 그러나 이런 고난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의 신앙을 보면서였다. 평소 근검과 절약대로라면 소실된 재산을 가장 아끼워해야 할 분이였다. 그러나 내내 초연하였다. 조용히 눈을 감으시고 『내 영혼이 은총임이...』라는 찬송을 끝질까지 부르셨다.

『고난에는 더 큰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역경을 헤쳐나갈 용기와 지혜를 구하자꾸나,』

나는 깨달았다. 역경과 고난은 신앙의 깊이에 따라 「총격의 파장」이 다르다는 것을…。 주님께서도 깊은 곳으로 가라고 하셨는데 아, 내 신앙의 깊이는 얼마나 얕았는지. 우리는 하나님의 좋은 소식을 믿는 가운데 화제의 고난을 받고 전보다 더 활기치게 일할 수 있었다.

1976년 목사인수를 받았다. 가는 농촌개척지마다 제일 먼저 세운 것이 교회였다. 사명을 받고보니 생각의 폭이 달라졌다. 많은 수요생들을 배출하고 이곳저곳에서 강연하며 나는 언제나 「한계의 벽」이 있음을 절감했다. 그것은 인간의 이상향은 논리적인 이론이나 정신, 「신성한 노동」으로 결코 채워질 수 없다는 사실이었다. 인간에게 누구나 「깊은 영적 목구멍」이 내제되어 있었다.

나는 『하나님, 이들에게 진정한 희망과 용기, 영생의 기쁨을 줄 수 있는 메시지를 전하게 하소서. 신앙의 확신을 가지

게 하소서』라고 기도했다. 그러면서 나는 이렇게 강조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육체를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육체는 흙을 가꾸고 그 소산물을 먹어야 하며 영혼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야 합니다. 이것은 생명의 법칙입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거듭날 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1973년에는 강원도 원주군 신림면에 제5차 개척지인 「제2가나안농군학교」를 세울 수 있었다. 농군학교 수료자인 김윤환 김기해 장로 두분이 이 지역 땅 15만평을 사서 우리에게 기증했던 것이다.

「창조정신」을 갖고 무엇이든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는 인내와 고통이 따른다. 「개척정신」은 「창조정신」이며 「인내정신」이라고 강조하고 싶다. 이런 일을 하는 개척자는 꿈이 있어야 하며 확신과 결단, 의지력이 강해야 한다. 우리 신앙에도 이런 개척자 정신이 있어야 하늘나라를 확장시키리라 믿는다.

제2가나안학교도 술한 방법을 필요로 했다. 황무지에서 비탈을 깎고 자갈밭을 일구었다. 제일 먼저 교회를 지었으며 기도원과 개인기도실 80개도 마련했다. 신앙을 바탕으로 할 때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과 용기를 기질 수 있었다.

1982년에는 「농군사관학교」와 「북민대학」등 새로운 과정을 신설했다. 사관학교는 농촌운동에 뜻을 둔 젊은이들을 선발, 4개월간 집중훈련을 시키는 과정이며 북민대학은 목사, 전도사, 장로를 위한 무료 교육프로그램이었다.

형제들 모두가 출가하면서 전기족의 직원회가 이루어졌다. 동생 범일은 제2가나안학교를, 평일은 청소년교육원을



말았다. 아내도 신학을 한 뒤 전도사로서 목회를 돕기 시작했다. 매제인 임영철 박사와 김기석 박사도 제1기나안학교와 복민연구실에 몸담고 있다. 제수들도 전공을 살려 강의를 맡아 가족감사만 11명에 이른다.

1988년 8월 1일 선친인 김용기 장로는 80세를 일기로 소천했다. 그분의 일생은 황무지 개척과 농촌지도자 양성, 복음 전도에 최선을 다한 삶이었다. 그분의 가장 귀한 유산은 우리 민족에 대한 지극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절대복종이었다.

우리 전가족은 장례식을 치른 뒤 가족회의를 열어 선친의 뜻을 기리며 마음을 합쳐 그분의 이념과 사상, 사랑과 신앙을 계승할 것을 다짐했다.

나는 농촌운동을 해온 목사로서 오늘의 크리스천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자기희생과 포기가 있을 때 진실해진다. 남들과 똑같이 누리고 느끼며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기란 힘들다. 인간의 제일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는 것을 상기하며 회개와 영적 각성이 늘 거듭되어야 한다.”

오늘의 시대풍조는 과소비와 향락, 투기의 물질만능주의가 팽배하고 있다. 여기에 덧붙여 가나안농군학교에서 가르치는 생활수칙 몇가지를 전해주고 싶다.

△신앙과 생활을 일치시키자 △늘 감사하며 기쁨 속에서 살자 △유혹장 출입과 잠기를 삼가자 △모든 물건을 아껴쓰고 쓸한물이라도 절약하자 △부부의 정조보전을 절대명령으로 알자 △불건전한 경제활동을 하지말자 △어려운 일을 하

는 노동자를 더욱 사랑하자 △정부부패없는 정치한 직장생활을 하자.

기독교진리를 표제로 내건 근로 봉사 회생의 가나안 이념은 정신교육을 통한 도덕적 개혁, 농민과 사회운동을 통한 바른 사회구현, 민주적이고 협동적인 신앙, 국가건설에 궁극적 목표를 둔다.

이것의 실현은 아직 멀고 험하다. 그러나 나는 가나안의 복민운동자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순교한다는 정신으로 신앙과 믿음의 개척사, 휴과 인간심성의 개척사를 계속 이루어 나갈 것이다.

## 질망은 신(神)의 출발

박성수

「하나님, 제 사업이 89년에는 5백억원, 90년에는 1천억원의 매출을 기록하게 하옵소서」

80년 9월, 남에게 5백만원을 빌려 사업을 시작한 나는 이렇게 기도했다. 누가 들으면 분명 머리가 돌아갔다고 했을 것이다.

이제 10년이 넘은 지금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갑절의 복을 주셨다. (주)이랜드가 88년 본격 법인체로 등록된 이래 매년 200~380%의 성장을 이뤄왔으며 89년의 총매출액은 1천 1백억원을 기록했다. 자매회사로 「브렌파노」 「언더우드」 「헌트」 「리틀·브렌」까지 탄생하게 하였고 앞으로 몇개가 더 나올 예정이다.

많은 분들이 도대체 이런 성공의 비결이 어디에 있는지냐고 묻는다. 나는 그분들에게 자신있게 말한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뜻을 따르십시오. 자신을 비우는 청지기적인 삶의 자세와 물질을 초월하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은 더 큰 복을 주시길 원하시나 우리가 받을

그릇을 준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올해 나이 38세. 나의 신앙과 삶을 누구에게 드러내기엔 아직 부끄럽다고 늘 생각한다. 그러나 짧은 삶속에서 체험한 하나님의 섭리이건만 내겐 늘 깊은 감격으로 다가온다. 감사와 기쁨, 평안은 기독교인만이 가지는 고유한 특권이다. 이것은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고귀한 것이라고 확신한다.

비교적 부유한 환경 속에서 지란 나는 71년 연세대학교 식품공학과에 입학했다. 모태신앙으로 어렸을 때부터 교회생활에 익숙했으나 「거듭남의 체험」은 없었다. 그런데 대학입학과 함께 신앙의 좋은 친구들을 만나게 되었고 회현동에 있는 교회로 이끔림을 받았다. 당시 이곳 대학부는 육한출전 도시가 지도했는데 신앙의 좋은 친구와 훌륭한 스승을 만난 것은 내게 더할 수 없는 도움이 되었다.

대학의 전공은 내 적성에 맞지 않았다. 6개월만에 다시 재수를 시작했다. 이 무렵 CCC활동을 하는 사촌누이로부터 「성령충만의 비밀을 아십니까?」라는 전도지를 건네받았다. 중생하지 못한 성도들을 위한 글이었는데 명목상의 주님을 삼기고 아직 죄책을 떨쳐버리지 못했던 나에게 큰 도전을 주었다. 나는 그 자리서 무릎을 꿇었다.

「주여, 당신을 제 삶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저를 인도하시고 제 삶을 주창해 주옵소서」

그러자 내가 느끼지 못했던 평안과 승리감, 기쁨과 감사가 북돋움처럼 밀려왔다. 신앙은 내게 더 큰 의미로 부각되기 시작했다. 이듬해 서울대 건축공학과에 입학했다.

73년 여의도광장에서 열린 「발리 그레이엄 전도대회」는 내

게 주님의 일을 하겠노라는 헌신의 기회를 제공했다. 아직 무르익지 못한 신앙이었지만 나의 삶을 주님께 서원했고 이 다짐이 지금까지 내 인생의 많은 부분을 지배하고 있다.

교회생활은 계속 열심히 했지만 사실 나는 세상의 여러 가지에도 깊은 흥미를 느끼고 있었다. 세상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일, 돈을 버는 일, 주위의 인정을 받는 일... 그것은 신앙과의 갈등을 유발했지만 젊은 나로서는 떨쳐버릴 수 없는 요소였다. 오히려 세상적인 속성에 관심을 가지고 뛰어들려는 나를 문득문득 발견했다. 이런 것들을 내가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지금 생각하면 부모님의 끊임없는 배후기도였다고 생각된다.

대학4학년 때인 75년, 내 삶에는 무서운 병마가 다가왔다. 그러나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연단과정임을 안 것은 훨씬 뒤의 일이었다.

대학4년, 졸업이 가까워온 무렵이었다. 갑자기 손의 힘이 풀리면서 글씨를 쓸 수 없었다. 그뿐 아니라 이불이 무거웠고 점퍼를 입기도 벅했다. 갑자기 닥친 무기력증.

평소에도 쉬 피로를 느끼긴 했지만 증세가 심해졌다. 놀란 마음으로 병원에 입원해 정밀검사를 받았다.

「근육무력증이라는 병입니다. 이 병은 근육이 점점 약화되어 힘을 못쓰다가 심해지면 전신마비가 되지요. 더구나 이 병은 특별한 치료법이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청년벼락같은 의사의 진단이었다. 이제 의욕적인 첫발을 내디뎌야할 시기에 내가 붙쳐의 병을 갖게 되다니...

하루의 절반은 누워 있어야 했다. 조금씩 거동은 했지만 활동하기엔 벅했다. 전례에 대한 불인감이 나를 괴롭혔다.

이 상황에서 내게 유일한 기쁨이 되었던 것은 대학부활동을 계속하며 후배들의 신앙을 지도해 주었던 점이다.

이 무렵 나는 성경공부 그룹의 지도자로 후배들을 가르치는 일을 했다. 몸은 아팠지만 보람과 소명을 일깨워주는 사역이었다. 따라서 나는 절망과 기쁨을 동시에 갖고 있었다. 학생들을 지도할 때는 희망과 용기가 솟는 반면, 현실생활로 돌아오면 무력감과 절망감이 엄습했다.

자연히 누워서 많은 시간을 보내야 했던 나는 본격적인 독서를 시작했다. 여기서 나는 내 사업의 밑바탕이 되어준 다양한 정보를 습득했다. 2년이 좀 넘는 기간에 내가 산 책이 3천권 가까이 된다. 특히 사람을 키우는 방법이나 생소한 분야까지 공부할 수 있었다.

여기서 얻은 결론은 기독교인은 하나님이 주시는 때를 위해 기다림 속에서 인내를 배워야 한다는 사실이었다. 높은 건물은 기초가 튼튼해야 하듯 준비기간이 길다고 실망해서는 안된다.

병을 얻은 뒤 계속 하나님께 치료를 간구하며 금식기도와 함께 기도원도 여러번 찾았다. 주위 동료들과 부모님의 중보 기도도 내게 큰 힘이 되었다.

1978년, 2년여를 넘게 끝던 나의 질병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사랑을 통해 치료의 손길을 베풀어 주셨다. 이것은 「기적」이라고 표현해야 가장 타당할 듯하다.

어머니의 소개로 어떤 한의사를 만나 한약을 먹게 되었다. 나는 약을 먹으며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러자 서서히 몸에 부쩍 힘이 생기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하루하루가 달랐다. 3개월쯤 지나니 행동에 큰 불편함을 느낄 수 없었다. 치료가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진 이 증세가 치료된 것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치료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찬양했다. 하나님께서 고쳐 주셨다는 확신이 섰지만 혹시 재발할지 모른다는 인간적인 생각이 다시 그 한의사를 찾았다. 『정말 이상합니다. 제가 어떤 처방을 썼는지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군요. 거기다 처방전까지 어디로 갔는지 사라져 버렸어요』

고개를 가우뚱거리는 한의사를 보며 나는 비로소 내결에 계시는 하나님의 숨결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

병상에서 독서를 하며 꿈을 키운 사업계획이 많았다. 그것을 시도하기만 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가득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지 않으셨다.

아직 내가 돈에 대해, 명예에 대해 초월하는 청지기 의식이 미숙하다고 느껴졌던 것이다.

병이 완쾌된 후 계획했던 사업의 길이 열리지 않자 첫번째로 택한 직업이 화원감사였다. 정상적인 직장을 구하지 않은 것은 대학생들의 성경공부를 지도하는데 시간적인 제약을 받았기 때문이다.

1980년 8월 정부의 과외금지조치가 취해지자 화원도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 나는 한 달간 열심히 기도해 매달렸다. 『하나님, 사업의 길이 열리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제 삶은 이미 하나님께 드리기로 사원하지 않았습니까. 사업이 성공 하더라도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데 사용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통해 5백만원의 사업자금을 주셨다. 이 무렵 부모님의 도움을 받을 수 없었던 것은, 내가 불

신자와 결혼하려는 여동생의 뜻에 강력하게 반대해 결혼식에도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지금 생각하면 내가 너무 지나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지만 이 일로 식구들과 연락이 끊긴 상태였다.

5백만원으로 이화여대 앞에 2평짜리 옷가게를 열었다. 평소 의상디자인에 관심이 크기도 했지만 이미 세부적인 계획이 세워져 있었다. 그리고 더욱 자신감을 갖게 했던 것은 성경공부 리더들의 옷을 선물로 사주면서였다. 성경공부 리더들은 작은 돈으로 옷을 깔끔하고 세련되게 입어야 한다고 느껴 색상과 디자인을 직접 골랐는데 이것이 놀랄만큼 반응이 좋았던 것이다.

남대문시장과 평화시장을 누비며 시장성이 있는 옷만 골라 팔기 시작했다. 옷이 없어 못팔 정도였다. 아울러 끊임없이 의상에 관해 연구하는 자세를 기쳤다. 최신 의류정보를 입수했고 직원을 뽑아 디자인팀을 제일 먼저 구성했다.

이곳저곳에서 나와 같은 가게를 열고 싶다는 뜻과, 같은 물건을 갖다 팔라는 요구가 빗발쳤다. 나는 그곳에 옷을 납품하기 시작했다. 그 대신 간판을 모두 이대기계의 상호인 「인글랜드」로 변경토록 했다. 의류체인점 형식을 취한 것이다. 인터넷어와 진열에도 신경 썼고 직접 디자인해 하청을 주기도 했다.

사업이 성장할수록 하나남께 서원한 것을 상기하며 저만하지 않도록 나를 다스렸다. 이것은 내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기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항상 생각했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고 실행하기에 앞서 기도를 시작했다. 이렇게 85년까지 일을 하면서 늘 양심에 걸리는 것이 있었

다. 물건을 받아 넘겨주는 위탁업이므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세금을 내는 근거가 없었다.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돌리는 이 사업이 몇몇하길 원합니다. 양쪽 모두가 세금계산서를 원치 않으니 올바르게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양심에 꺼렸던 이 일은 결국 법인으로 전환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86년 (주)이.랜드가 탄생했다. 사실 의류를 납품하는데 만족했다더라면 오늘날의 이런 성장은 없었을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또 세상 앞에서 부끄럽지 않고 정직해지려고 노력하자 하나님께서는 더 큰 복을 내려주시기 시작하신 것이다.

86년 매출액이 66억원이었다. 87년에는 1백45억원, 88년에는 4백65억원, 89년에는 1천1백억원을 기록했다. 그동안 모든 업무를 컴퓨터화하고 건설분야에까지 손을 대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의 최우선 순위는 언제나 하나님이었다.

의류업이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대리점 성장에 중점을 둔 경영방식에 있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마태복음 7장 12절)는 성경말씀처럼 회사의 이익보다는 대리점의 이익에 더 많은 신경을 썼다. 장사가 안되면 손해를 메꾸어 주었고 장소가 나쁘면 대리점 위치를 변경해 주었다.

그러나 모든 대리점에 절대 양보하지 않았던 것이 있었다. 「인사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십계명의 실행이었다. 대리점 계약시 주일은 영업을 하지 않을 것을 분명히 명

시하고 다짐을 받았다.

그러나 몇몇 대리점에서 주일에 장사가 잘 된다며 문을 열곤 했다. 나는 이에 대한 조치로 「주일영업」이 한번 발각되었을 때는 1주일간 물건납품을 중지하며 3번이상 발각 때는 「대리점계약취소」라는 조항을 추가했다.

사실 다른 업체의 경우 일년 총매출의 30%는 주일판매에 의한 것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작년에 3백여원 이상의 물건을 팔 기회를 놓쳤다는 계산이 나온다. 그러나 그것은 지극히 인간적인 계산일 뿐 주일성수를 했기에 이런 폭발적인 성장이 이뤄진 것이라고 분명히 믿는다. 인간의 계산이 하나님의 법칙 앞에 얼마나 의미없는 것인가. 우리는 주일성수를 하면서도 작년에 의무업체 가운데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지, 쓸 것을 하 나님께서 채워주신 것이다.

직원들의 신앙교육에도 중점을 두었다. 월요일마다 목사님을 모셔다 예배를 드리고 계속 그룹별로 성경공부까지 하고 있다. 따라서 월요일은 정상업무가 오전11시가 다되어야 시작된다. 매일 아침 전직원이 30분간 「경건의 시간」을 갖는다.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이 자신의 삶에 적용되도록 훈련하는 것이다.

이런 「경건의 훈련」은 전직원들의 단합과 영적 성장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우리가 성공할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요인은 소비자의 반응을 늘 평가 분석해 회사운영에 즉각 반영한다는 것과 민주적인 방식으로 운영해 나가는데 있었다. 이렇게 하자 타업체의 경우 작년 재고율이 40%인 반면 우리는 2% 밖에 되지 않았

다. 따라서 저가로도 경쟁이 가능했던 것이다. 또 출근부를 없애고 직원 스스로가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했다. 새상품의 디자인과 제품수량도 전직원이 투표해서 결정했다.

사원을 가족처럼 대하고 충분한 자율권을 부여했을 때 조직에 탄력이 높고 일의 능률이 올랐다.

또 하나, 근검절약이 생활화되고 있는 것도 성장의 요인이었다. 역사적으로 근검절약한 나라는 부강했다. 이것은 물질절약 외에도 정신이 건강해지는 이득이 있다. 대부분의 직원이 도시락을 싸오며 불필요한 곳에는 전혀 돈을 쓰지 않았다.

그러나 이 모든 생각과 새로운 아이디어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믿는다. 내 경우 아침 경건의 시간에 말씀을 읽으며 많은 지혜와 아이디어를 얻어낼 수 있었다.

사업이 본체도에 오르면서 스스로 다시한번 다짐했다.

『돈을 버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는 일이다.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에 펼치는 것이다. 나의 궁극적 삶의 목표는 선교에 있다』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우리 사회는 구조적인 악습과 비리가 스며 있음을 보았다.

『그때, 기독교정신을 가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해 보자』

모든 업무에 정도(正道)를 건는다는 방침이래 「불의한 돈」을 쓰지 않았다. 따라서 얼마든지 쉽게 풀어나갈 수 있는 회사를 우리 스스로 어렵게 만들었다. 그러나 우리는 「좁은 문」으로 간다는 신념으로 정도를 걸었다. 융통성이 없어 파

막혔다는 비난도 수없이 들었다. 그러나 어리석어 보일지라도 비본질이 지름길이라는 신념을 잃지 않았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뜻밖이기 위한 것이며 신앙을 바탕으로 했기에 가능했던 일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모두 우리를 인정했다. 처음에 비난하던 사람들도 회사의 이념과 정신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세무서에서 인정해주는 기업관공비는 전액 선교비와 사회사업에 사용도록 했다.

나는 시간이 날 때마다 전직원에게 우리 회사의 창립정신을 하나씩 설명했고 이것이 모여 「이·랜드이념」이 되었다. 핵심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 말씀중심의 삶 △긍정적 사고방식 △감사정신 △늘 배우는 자세 △팀워크시 △월드비전(세계선교) △미래지향적·타인중심적 사고 △활저한 상인정신 △근검절약정신 △내실 △재능보다 성실 △모든 것을 다르게 생각하자 △일보다 사람이 중심이다 △돈보다 일중심이다 △최고정신을 늘 가져자 등이다.

아울러 5개의 고유브랜드를 독립체제로 운영, 서로 경쟁토록 했다. 내부경쟁력을 키운 상태에서 외부경쟁력과 맞서니 어려움이 있을 수 없었다.

86년 가정에 예기치않던 고난이 엄습했다. 85년에 결혼한 아내가 병을 얻어 반신이 마비된 것이다. 병이 악화되어 가는 아내를 보며 나는 부르짖었다.

『하나님 치료의 광선을 발해 주옵소서. 「똥는 배필」을 잃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내 경우와 마찬가지로 한의사인 한 장로님을

만나게 해주셨고 기적적인 회복을 이루게 하셨다.

이 일을 통해 나의 신앙은 한번더 거듭났다. 인간의 절망은 신의 출발이란 말을 절감했다. 또 하나 깨달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치료를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감사를 느끼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살 수 있게 되는 그 자체가 가장 큰 감사』라는 사실이었다. 이런 신념을 가질 때 어떠한 고난과 역경도 오히려 감사의 조건이 되는 셈이다. 절박했던 체험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와 구원을 깊이 깨달았다. 나는 역경에 처할 때 역경 그 자체를 바라보며 절망하지 않고 역경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얻는다.

사업목적이 선교사업을 위한 과정이라고 사원했던 만큼 1982년 「아시아 미션」이라는 선교모임을 탄생시켰다.

캠퍼스 위주의 선교지역과 해외선교사 파송과 지원, 사회사업 위주로 활동하고 있다.

지금도 확신하는 것은 선교는 대학생에게 투자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생각이다. 마음밭이 순수하고 정열적인 대학시절에 복음이 접목될 때 그 과정은 크고 넓다. 대학생 선교단체들에 한국기독교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

90년 우리의 총매출액은 89년의 두배나 되는 2천1백억원이다. 지금까지 항상 초과달성되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함께 해주셨다. 나는 기독교사업가로서 몇가지 철칙이 있다.

크리스천 실업인은 첫째, 「내것」이라는 소유에 대해 초연해질 수 있는 청지기 의식이 필요하다. 누군가 「기난을 이겨내는 사람은 많아도 부를 이겨내는 사람은 드물다」고 했는데 공감한다. 물질이란 끊임없이 소유해도 만족이 없다. 어쩔

게 쓰느냐에 따라 가치가 달라질 뿐이다. 넘치게 얻어진 것은 선교와 사회사업, 소득재분배에 이끔없이 둘러져야 한다.

둘째, 사업체는 생계수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이라는 철저한 사명감이 요청된다. 늘 배우는 자세로 어려움을 이기고 충성과 최선을 다해야 한다.

셋째, 성공의 목적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야 한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선 사업자가 실패할 수 없다고 믿는다. 따라서 더 빠르게 가려다 중국에는 더 늦어버리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회사상호가 전국적으로 알려지고 대리점수가 많아지면서 갖가지 루머가 퍼졌다. 부도가 나서 회사문을 닫을 것이라는 지 이랜드를 비롯해 언더우드·브렌파노 등이 통일교 재단이 라는 이야기도 곳곳에서 들려왔다. 진원지가 정확하지는 않으나 악의적인 루머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이런 루머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계속 상승세였다. 하나님께서 복주신 결과였다. 우리는 지금 토블의류사업을 중심으로 화장품 출판 건설업 등을 연구 중이다.

이와 병행해 직원들의 선교사명을 고취시키는 가운데 대화 생선교, 동남이선교, 각종 사회사업 등을 극대화시켜 나갈 방침이다. 기업의 힘을 통해 하늘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려고 한다.

사실 나의 성서적 경영방식에 대해 내부에서도 불만이 있었다. 왜 가까운 길을 돌아서 가며 선교사업을 하느냐는 것이 주된 불만이였다. 이것이 노골적으로 표출되면서 심한 도전도 받았다. 그러나 모든 것을 참고 인내한다는 자세를 견지했다. 경영방침에 대립한다는 이유만으로 감정을 노출시

키는 것은 신앙인의 성숙한 모습이 아니라 고 느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업이 안정된 지금, 나의 의견에 반대했던 임원들 보다 더 많이 변한 것이 바로 「나 자신」임을 발견한다. 갈등과 고민 속에서 회생과 인내를 배울 수 있었다. 그리고 그 열매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찾을 수 있었다.

이제 나의 지난날을 돌아보면 어린시절 부모의 신앙적 가르침과 삶의 자세가 내게 큰 영향을 주었으며 대화시절의 선교적 소명이 삶의 좌표를 제시하는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느낀다.

나는 오늘날도 나 스스로 뿐 아니라 우리 업체직원 모두가 하나님 중심의 생각과 정신으로 언제나 빛과 소금의 자리에서 자고 강조한다. 그래서 크리스천기업이 어떻게 성장하고 발전하며 사회에 공헌하는지 모델로 간증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다. 역경은 언제나 우리 삶에 도사리고 있다. 그러나 그 역경 너머엔 하나님의 은총이 찬란히 빛을 발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알기에 나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다.



# 청년 1 청년 대학부를 살려라

지은이 홍창길 외 14인  
초판발행 1995. 12. 20.  
4쇄발행 1996. 4. 15.  
등록번호 제 3-203호  
등록된 곳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동 241-96  
발행처 도서출판 두란노  
업무부 749-1059  
FAX 749-3705  
편집부 794-5100  
인쇄처 상지인쇄  
한권값 5,500원

◎ 도서출판 두란노 1995  
ISBN 89-7008-554-8 03230

두란노서원은 비록 사드기 3차 정도 여행 때 애초소에서 제자들을 따로 세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던 장소입니다. 사드행진19살 8-20살의 장신에 따라 첫째 목회자를 돕는 시역과 형신도를 훈련시키는 시역, 둘째 세례학교(TIM, ICE)와 문서학교(출판·잡지)시역, 셋째 예수문화 및 경제의전인 양 시역, 그리고 가정·상담 시역 등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1980년 12월 22일에 창립된 두란노서원은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시역들을 계속할 것입니다.

청년 대학부를 살려라

## 샘물 근원이 맑으면 호수는 맑아진다

홍정길

외국에 나가 자신의 분야에서 열심히 공부한 어느 음악가가 있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고 실력도 키워 금의환향한 그는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가 되었다. 그리고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을 열심히 가르쳤지만 웬일인지 학생들은 입시의 원문에서 낙방의 실패를 거듭했다. 입시는 실력만으로 보는 게 아니라는 것을 학부형들이 나중에 알려 주었다. 이것이 한국의 예체능계 입시 부정 사건이다.

불행한 것은 한국의 음악 교수 가운데 90%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이다. 아마도 교회 안에서는 찬양을 부를 기회가 많고 음악을 접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기 때문에 자연히 교회 안에서 자란 사람들 가운데 음악을 전공하는 일이 많아졌을 것이다. 그런데 무엇보다 공정해야 할 입학 시험에서 부정이 성행하는 권행이 생겨나게 되었다. 심지어 입시 부정 사건으로 수치를 당한 사람들은 방산의 일각이라고들 한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기독교가 이 관행에 대해서, 사회의 악한 모습에 대해서 힘을 못쓰고 있다는 것이다. 사립 대학의 입시 부정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 중에도 그리스도인들이 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지만 한국의 모습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고 오히려

우울한 소식, 절망적인 소식이 우리 주변에 점점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거대한 관행의 악한 모습 앞에서 우리는 정직하게 질문해 보아야 한다.

교회는 과연 이 나라를 구할 수 있는가? 물론 교회 안에도 부패된 모습이 있다. 그러나 나는 우리 기독교는 이 시대를 구할 능력이 있으며 또 미명히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야만 한다고 말하고 싶다.

한 종교가 새로운 문화를 이루어 내고 새로운 풍조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세대가 바뀌어야 한다. 그리고 종교가 그 나라에 정립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 단계를 거쳐야만 한다.

첫째는 포교의 단계이다. 이는 교인 수의 증가와 모이는 것에 힘쓰는 단계이다. 한국 기독교 사회에서 떠난 책을 읽어 보면 한국 초대 교회의 성장을 한눈에 볼 수 있다. 그 책에 의하면 1887년에 선교사들이 우리 나라에 복음을 전해서 세례를 받은 숫자는 모두 25명이었다. 그처럼 적은 무리가 주께 나아왔다. 또 1888년 어느 회의에서 한국에 있는 선교사들이 모두 함께 모여서 “하나님, 올해는 이 나라에 세례 교인 30명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기도문을 발견할 수 있다. 이것을 보면 격세지감을 느낄 수 있다. 그렇게 포교가 어렵던 시대가 있었다는 말이다.

또 한 가지 한국 교회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은 한국 기독교 전래 역사의 두 가지 특별한 양태이다.

그 하나는 선교사들이 처음 한국에 입국할 때 이미 한국에 기독교인들이 있었고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전에 한국 말로 번역된 성경이 들어와 있었다는 것이다. 국외 민주 지방에 있었던 한국인들이 귀국하면서 가지고 들어온 이 복음을 그토록 적극적으로 수용한 나라가 세계 역사상 또 있을까?

또한 한국 기독교 전래의 축복 가운데 하나로서, 당시 세계 선교는

제국주의 열강들의 식민지 정책의 한 방향으로 이용되었으나 대한민 국민은 그렇지 않았다. 우리가 고통받고 열강의 총들 속에서 몹시 어려울 그때에 선교사들이 복음을 들고 우리의 친구로, 우리의 위로자로 들어왔던 것이다.

나는 세계 선교 전래 역사의 본질적으로 다른 양태를 갖는 이 축복 스런 사건이 한국 기독교의 전래 역사였다고 생각한다.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다. 필자가 인도네시아에 갔더니 그 나라에서는 기독교, 특히 네델란드의 개혁 교회에 대해서 상당한 반감을 갖고 있었다. 인도네시아를 350년 동안 식민지로 통치한 네델란드에서 개혁 교회의 선교사들을 본국의 스파이로 이용했기 때문이다. 인도네시아가 독립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기독교에 반대되는 모슬렘을 믿을 수밖에 없었고 이로써 뜻있는 민족주의자들은 대부분 모슬렘 신앙을 갖게 된 것이다. 그런가 하면 이 시대에 가장 악한 국가인 남아연방은 개혁 교회 중심의 신앙적인 뿌리를 갖고 있다.

그에 비해 한국 기독교는 식민지 정책에 오염되지 않았고, 선교사들도 오직 예수님 한 분 때문에 한국 땅에 들어왔다. 예수님은 우리 민족의 슬픈 눈물을 씻어 주고 낙심과 절망에서 우리들을 일으켜 세워 주시는 놀라운 분으로 우리 민족사에 등장하신 것이다. 바로 이것이 우리 한국 교회의 큰 특권이며 축복이라고 생각한다. 아시아 지역의 다른 나라들은 복음을 받게 될 때 꼭 식민지 문제를 제기하고 식민지 확장 정책의 일환이었던 선교 정책을 비난한다. 그러나 한국만은 예외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재산이자 특정한 기번이 된다.

이렇게 시작한 교회가 1887년에는 25명이었다. 시작이 지지부진했다. 그러나 1907년 평양 장대현교회를 시작으로 회개 운동이 일어나자 교회들이 급속도로 증가하게 되었다. 기독교 연감에 나타난 다른 나라의 기독교 성장 그래프와 비교해 보면 한국의 기독교 성장 그래프

는 1907 - 1922년까지 수직으로 뻗어 있다. 수많은 사람이 변화하는 시대의 요구 앞에 신학을 접할 수 있는 환경으로 교회를 찾았고, 조국을 잃었던 비애를 달래기 위해 교회를 찾았다. 이와 함께 열성적인 선교사의 정령 충만한 모습을 통해서 교인들의 숫자는 급속히 증가하였다.

그러다가 기독교인이 1919년 3·1운동을 주도하였는데, 감옥에 갇힌 사람들을 보면 천도교인이 11%, 기독교인이 17%에 이르렀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33인 가운데 반수 이상이 기독교인이었다.

이후 식민지 정책이 문화 정책으로 바뀌어 기독교에 대해서 유효적인 제스처를 쓸 때 이 3·1운동 거사가 기독교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을 알게 된 민중들이 기독교로 모여들었다. 때문에 1919년부터 1922년까지 기독교인의 숫자가 급작스럽게 늘어난 것이다. 그 후 독립 운동의 진원지가 기독교라는 것을 확인한 일제가 교회를 탄압하기 시작하면서 교인의 숫자는 점점 줄어든다. 그때 기독교를 신학문의 도입 통로로 생각했던 몇몇 지도자들이 교회를 떠나자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라고 고백하는 사람만 교회 안에 남게 되었다. 교회는 일제의 탄압을 받고 신사 참배라는 어려운 고비를 겪으면서 몇 가지 양태들로 그 모습이 바뀌었다.

당시에 처음 사경회를 인도했고, 성경 공부를 가르칠 줄 알았던 성경 교사나 지도자들은 복음을 전할 수 없도록 제한을 받았다. 어떤 사람들은 투옥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만주나 또 다른 외국으로 도피했기 때문에 한국 내에는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없었다.

또한 외국의 새로운 신학 체계들이 들어오고 이단 문제들이 생겨나 신학 논쟁을 벌이면서 자연스럽게 조직 신학 체계가 한국 신학교에 자리잡게 되었다. 논쟁을 하면서 모든 논리들은 변증적이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양식이 되고 내 삶의 참된 기준이 되기보다는 그

것이 '용'이나 그르냐에 관심이 모아졌다. 신학의 공허한 공백과 또 처음 성경 공부를 가르쳤던 세력이 사라진 공백을 통해서 기독교에는 새로운 부흥 운동이 일어나게 된다.

일제의 탄압과 함께 일어난 세 부류의 유명한 부흥사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한 분이 길선주 목사님이다. 이분은 3·1운동을 주도한 33인 가운데 한 분으로 감옥에 투옥되어 요한계시록을 700독하고 예수님의 제림 사상을 자주 강론하셨다. 길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사람들은 예수님이 지금이라도 곧 오실 것만 같은 강렬한 감동을 느꼈다고 한다. 길 목사님은 고통받던 그 시대에 영원한 천국 소망으로 우리 민족을 위로하셨던 분이다.

어떤 사람은 기독교가 내세를 강조하면서 현실을 너무 무시한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여기서 기차를 타고 인천에 갈 사람과 부천에 갈 사람은 앉은 자세부터 다르다. 지금 이 순간이 살아 계신 하나님의 영원의 한 시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아주 없어져 버릴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순간을 사는 자세가 다르다. 그래서 칸트는 도덕이 바로 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을 계셔야 하고 내세가 있어야 한다고 믿었다. 물론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

일제 치하, 고통받고 어려웠던 때 우리 민족에게 천국의 소망을 심어 주신 길 목사님의 설교는 한국 교회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쳤다. 길선주 목사님과 신유를 통한 부흥 운동을 이끄신 김익두 목사님, 그리고 신비주의자 이흥도 목사님, 이 세 분이 이제까지 성경 공부를 통해서 회개 운동을 펼쳤던 한국 초대 교회의 젊은 역사를 칭찬하고 조금은 주관적이고 감동적인 부흥회의 역사로 한국 기독교 역사의 강을 바꾸었다.

그러면서 이 부흥회는 기도원에 들이간 몇몇 소수의 사람들에게 전수된다. 해방 후 혼란기를 거쳐 6·25 직후까지 기도원에 들어가 참으

로기도를 많이 하셨던 분 가운데 성결 교회의 이성봉 목사님이 있었다. 한 시대를 이끌었던 부흥사로서 그분의 천로 역정은 많은 사람의 심금을 울렸다. 그 후 여러 부흥사들이 계속 배출되어 부흥 시대를 구가하게 되었고 한국 교회는 그 시기를 통해 교화에 많은 숫자가 모이는데에 전력을 쏟았다.

이것이 조직화된 것은 젊은 대학생 중심으로 펼쳐진 민족 복음화 운동을 통해서이다. 1969년 민족 복음화 운동을 시작한 그 당시 기독교인의 숫자는 백만이었다. 복음을 요약한 진도 소책자 4영리로 천도할 때의 열정. 그리고 부흥사의 복음 확산에 힘입어 백만에서 천만으로 그 숫자가 증가됨으로써 한국 교회는 15년 만에 부흥 목표를 달성했다. 그 결과 지금은 방방곡곡 교회 없는 곳이 없고, 별칭 사무실마다 예배드리지 않는 곳이 없다. 놀라운 변화이다.

한편 기독교는 모이는 것이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면 포교 중심에서 이제는 성경 공부로 들어가는 두 번째 단계에 이르게 된다.

우리 남서울교회의 시작은 반포 아파트 단지에서 몇몇이 모여 성경 공부를 하면서부터이다. 이후 남서울교회에서 성경을 배우면서 반포 지역 사람들이 급격히 변화되었다는 말을 듣게 되었다. 처음에는 동료, 선배 목사님들도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는 것을 많이 반대했고 꾸중도 많이 하셨다. 그 정도로 몰이해된 상태였다. 그러나 몇 년 뒤 우리 교회보다 더 완전한 형태로 사랑의교회, 온누리교회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성경 공부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뒷받침해 주었다. 이제는 젊은 목회자들의 목회 방향이 성경 공부하는 교회로 많이 바뀌어져 가는 것을 본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다.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쥘러 쥘러 쥘러 가지 하는 능력의 말씀이다. 그 말씀이 삶으로 드러날 때에 힘이 있고 권세가 있다. 우리 한국 교회의 모순 가운데 하나는 성경을 목

서만 보는 책으로 생각하고 오랫동안 목회자들만 독점해 왔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제 성도들이 삶 속에서 영혼의 양식으로 말씀을 먹을 때 그 삶이 바뀌는 영광스런 모습을 많이 볼 수 있다.

성경은 세 단계로 전파된다. 성경이 옳다는 진리가 널리 퍼지는 포교의 단계가 있는가 하면 그 말씀을 공부하는 두 번째 단계가 있고, 또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 그 말씀대로 삶에서 순종하는 적용의 단계에까지 나아가게 된다. 이 적용의 단계에 도달할 때 문화가 바뀌게 된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달라지게 된다. 한국 교회는 이제 겨우 성경을 공부하는 교회로 바뀌었다. 지금은 평신도 성경 공부가 없는 교회는 드물 정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 땅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만들어 낼 것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문화를 이룩해 낼 것이다.

1200년대를 살았던 위클리프(Wycliff)는 성경을 번역하면서 서문에 이렇게 말했다. "이 성경은 반드시 민중을 위한, 민중에 의한, 민중의 정부를 만들어 내어야 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로 자기가 말씀을 먹어 보고 말씀을 연구하고 그것을 적용해 보기 전에는 이 말씀이 능력인 것을 깨달을 수가 없다. 아무리 날이 선 칼도 칼집에 들어 있는 한 그것은 몽둥이에 불과하다. 칼집에서 꺼내야 하고 휘둘러 봐야 된다. 싸워 봐야 된다. 그래야 그것이 명점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또한 그렇다.

사실 성경 공부는 교회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었다. 감정적인 뜨거운 만으로는 민족을 못하는 젊은 지성인들이 학생 단체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였는데 그 같은 교회 밖의 운동이 정리되고 교회에 전수되어 오늘날 그들 성경 공부나 경건의 시간을 갖는 운동으로 확산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한국 교회에 펼쳐지고 있으나 또 이런 비난도 듣는다. 서구에서 교육을 받고 돌아왔거나 그곳에서 좋은 교회

의 모델을 본 사람들이 한국 교회는 많은 약점을 갖고 있고 더 이상 아무 소망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다.

필자가 런던 바이블 인스티튜트(London Bible Institute)에서 존 스톱트 목사님과 함께 공부할 때 그분이 추천한 책이 있다. 그것은 페터 슨이라는 배도선 선교사님이 쓴 책으로 '한국 교회여 조심하라'란 책이다. 이 책은 영국인으로 의사 출신인데 한국의 마신에서 17년 동안 버림받고 가난한 어린이들을 위한 결핵 요양소를 운영하면서 많은 아이들을 살려 준 분이다. 이름도 빛도 없이 일하신 분으로 한국 교회, 특히 고려파 중심의 교회들을 섬기면서 한국 교회의 모순과 맹점을 적나라하게 써 나갔다.

그분과 함께 데니스 레인 목사님의 집회에 참석했을 때 나는 한국 교회에 강해 실꾼이 이루어지면 이 능력의 말씀이 반드시 한국 교회를 새롭게 할 줄로 믿는다고 말했다. 그런데 그분 얘기가, 자신이 마신에 처음 갔을 때 마신의 젊은 목회자들이 자기를 찾아와서 선교사님이 지금 어렵더라도 조금만 참으시면 곧 우리가 이 노회의 주도권을 잡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내세하고 있던 모순과 불합리를 청산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더라. 그런데 그들의 예언 중 하나는 맞았고 하나는 틀렸다고 한다. 5년 뒤쯤 그들은 주요 임직을 맡게 되었지만 그 상황은 이전보다 더 악화했다는 것이다. 한국 교회를 보는 그분의 시선은 예리했고 기독교 2천 년 역사의 흐름 속에서 정직한 눈으로 한국 교회를 비판했다. 조지 모쉬 같은 분도 한국 교회는 사데 교회와 같다는 말을 했다. 그 글은 참으로 진실한 글이다. 그러나 한국 교회 전체를 보는 글은 아니다. 한국 교회의 역사는 짧다.

영국 교회가 1세기 되었을 때 영국 교회의 실상은 어떠했나? 우리 한국은 1세기밖에 안됐다. 초오서의 캔터베리 이야기를 읽어 보면 정령 승배와 미신으로 섞여 있는 기독교를 보게 된다. 영국 교회는 15세

기의 역사를 갖고 있지만 정령 승배에서 벗어나지 못한 혼합된 모습을 갖고 있다.

1세기 된 이 작은 한국 교회는 그 동안 많은 수난을 겪었다. 일제 해방기의 혼란, 그리고 6·25 민족 상잔의 비극을 겪으면서 우리 선배들은 제대로 공부도 하지 못했다.

100년 전 미국에서 침례를 받았던 침례 교인들은 정로 교인들에 의해서 화형까지 당했다. 또 정신 이상자들을 마녀라고 하면서 불태워 죽이는 일도 수없이 있었다. 그것이 서구 기독교의 역사다. 그것에 비하면 한국 교회는 하나님께 감사할 조건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외국에서 공부하고 왔거나 학생 단체에서 자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무시하는 것을 종종 본다. 이것 또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교회의 연약한 모습, 추태가 모두 사실일 수 있다. 그러나 한국 교회가 처음 시작했던 때를 생각하고 여기 와 있는 모습을 보면 대단한 발전이라고 생각한다. 한국 교회가 잘 모이는 것도 축복이고 특권이다. 한 번 모일 때 백만 명 이상 모이는 곳은 기독교의 역사상 대한민국밖에 없다. 이것은 축복이다.

교회를 향한 외부의 비판적 시각도 주시해야겠지만 또 하나, 신앙의 선배들에 대한 우리의 견해 가운데 넘어서야 할 점이 있다.

필자는 1965년에 예수님을 영접하였고 1967년에 신학교에 들어갔다. 대학에 다닐 때만 해도 키닝을 물렸던 필자는 신학교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이 부정을 지지하는 것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 아직도 그 문제가 신학교에서 해결이 안되었다는 말을 듣고 신학교에 나가서 강의하던 것도 그만두었다. 총회나 노회에 나갔을 때 목사님들 사이에서도 서로 물고 다투는 것을 보면 마음이 상하고 설교할 힘마저 잃게 된다. 처음에는 그 어른들을, 신앙의 선배님들을 이해할 수 없었다. 말에 신실성이 없는 것에 놀라고 실망했다. 그러나 이제는 마음으로 정

리가 되었다.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살았던 시대는 일제였고 해방 후 혼란기였다. 좌우의 싸움으로 도덕성이 없던 시대였고 조금 후에는 민족 상전의 비극인 6·25가 일어났다. 내가 살기 위해서는 옆 사람을 죽일 수밖에 없는 혼란의 와중에서 살기 위해 남을 쓰러뜨리는 비참한 시대였다. 교육을 받을 환경도 못 되었고 먹을 것도 없었다. 그분들은 그런 문화와 풍습 속에서 그 시대의 아들들로 사셨다.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우리가 한 시대를 살면서 그 시대의 영향을 넘어선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분들은 그렇게 불우하고 비참한 삶을 살면서도 우리에게 기독교를 전해 주었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었다는 것이다. 그것만으로도 대단한 일이었다. 그 다음부터는 그분들에 대한 감사가 있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다. 그분들은 그 아픈 시대의 아들로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지만 우리는 다르다. 우리가 그들의 악을 그대로 본받는다면 그것은 안될 말이다. 그리고 그분들은 지나가는 분들이다. 붙잡아도 가실 분들이다. 가는 분들을 보고 정치하게 사시라고 아무리 강조해도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

### 문제는 무엇인가?

그렇지 않은 우리들이 바르게 사는 것이다. 복사는 목사대로 평신도든 평신도대로 교수는 교수대로 정치학계 사는 것이다. 한국에 새로운 시대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이미 자라서 자기 생각에 굳어 있는 사람들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자라나는 세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키우는 것밖에 없다. 새 세대를 계속 키워 내야 한다. 이런 무리들이 이곳저곳에서 정치학계 자라 오르면 한국은 반드시 바뀌게 된다. 청년 대학

생들이 바르게 자라면 한국은 소망이 있다.

지금 한국의 학생 단체들이 복음주의 이름으로 한자리에 함께 만나 는 것을 본다. 좌경 학생들의 거센 움직임과 부정적인 영향 때문에 하나 될 필요성과 힘을 모아야 할 이유가 생겼다. 그래서 학생 복음주의 연합회가 생겼고 거기서 파생된 선교 한국은 선교 후보생, 헌신자를 키워 내고 있다. 90년도에 서울여대에서 선교 대회를 가졌을 때 그처럼 더운 날씨 속에서도 뜨거운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었고 모든 사람들이 놀라운 경험을 했다.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1,800명의 헌신자들을 보면서 얼마나 감동했는지 모른다.

이미 자란 사람은 변화를 받더라도 그들이 갖는 영향력에는 한계가 있다. 변화의 폭에도 한계가 있다.

예를 들면 개인적으로 필자가 참 존경하고 또 필자를 사랑해 주는 장로님이 계시다. 그 장로님은 큰 사업체를 경영하고 계산대 청말 성자와 같이서 어떻게 처연 분이 사업을 하실까 의아할 정도이다. 그 회사는 종업원들을 친자식처럼 돌보기 때문에 노사 분규가 없는 우량 기업으로 인정받고 있다. 그런데 그 회사에도 한계는 있다.

한편 요즘 잘 알려진 박성수 집사님은 지체 부자유자나 고아들과 함께 사업을 하고 있다. 학교에 다니면서도 무척 신앙 생활을 잘하였고 말씀 공부도 열심히 했는데 그때도 직접 자신이 디자인을 해서 옷을 만들곤 했다. 그때 당시 거금인 500만 원을 친구들에게서 건어 신촌에 조그만 옷가게를 열었다. 그것이 11년 전 일이다. 자그마하던 회사가 지라 작년에는 2,200억을 판매했다. 2위인 삼성의 매출액은 1,500억 밖에 안되었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입는 옷 가격이 총 2조 원이다. 그런데 이랜드(E·Land)가 그 10%를 넘긴 것이니 그 규모가 얼마나 큰 지 알 수 있다.

박 집사님은 단순히 두 가지를 위해서 사업을 시작했다고 한다. 첫

에는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하였다. 두 번째는 한국 사람들이 필요 이상으로 비싼 옷을 입는 것을 보고, 가격은 낮출 수 있을 만큼 낮추고 품질은 최상으로 만든 옷을 사람들에게 입히고 싶다는 생각에서였다. 그래서 만든 회사 이랜드가 지금은 브렌파노, 언더우드, 헌트, 제플라모, 웨인, 스크립트, 아네첸비, 레오베레 등으로 늘어났다.

회사가 그렇게 자라가기까지 많은 어려움도 있었다. 1년에 몇 차례씩 소방사에서 검사가 나올 때, 검사원들이 돈을 얻기 위해 여러 가지 까다로운 요구들을 했지만 그때마다 검사원들이 요구하는 위치에 소방시설을 놓는다고 여러 번씩 자리를 옮겨 달았다. 불평 없이 순종하는 것을 보고 나중에는 검사원들이 더 이상 공연한 요구를 하지 않게 되었다.

그가 2,200억을 매출했을 때, 사무서에서 나와 올해 세금 낼 것이 많다고 은근히 수고비를 요구했지만 박 집사님은 "내 평생에 바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대한 민국에서 세금을 제일 많이 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3년 동안 국제청에서는 공무원을 총동원해서 이 회사를 간섭하고 추적했지만 부정을 찾지 못했다. 그 다음부터 이 회사에서 하는 모든 보고를 있는 그대로 믿는다고 한다.

이랜드의 계열 회사는 주일에 모두 문을 닫는다. 만약 800여 개의 직영점 가운데 주일날 문을 여는 곳이 있으면 다음에 물건을 대 주지 않는다고 한다.

이랜드가 빌려 쓰고 있는 빌딩의 임대료가 지꾸 오르자 땅을 사서 건물을 지어야 할지, 아니면 부동산으로 투기하는 많은 기업들을 떠올릴 때 기독교 기업으로서 땅을 사지 말아야 할지를 가지고 박 집사님은 한동안 고민을 했다. 하지만 꼭 필요해서 필요한 만큼 갖는 것은 정당하다고 생각해서 건물을 샀다. 그런데 땅을 사려고 하면 언제나 주인이 실제 거래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보고해 달라고 해서 고충이

있었다.

결국 어렵게 건물을 구입했다. 그것도 구청에 속행료를 내지 않아 일년 반 동안 질질 끌다가 겨우 허가를 받았다. 허가를 받아서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때 미침 수해 때문에 많은 수채민이 생겼다. 회사 이전 시기를 늦춰 가면서 그들을 먼저 새 건물에 입주시키고 그들을 위한 편의 시설을 설치하여 배려했다. 얼마나 맛있는 기업인가?

그 회사에는 없는 것이 하나 있다. 바로 접대비다. 정부에서 허락하는 전 매출액의 2%로 책정한 접대비는 신고비와 구제비로 쓴다. 상당히 많은 액수를 구제로 쓴다. 본인이 나타내지 않기 때문이지만 그렇게 실질적인 데에 많은 돈을 쓰는 사람은 아직 보지 못했다. 따라서 내가 보기에 그 기업은 대한 민국에서 유일한 크리스천 기업이다.

만약 그가 사업을 하다가 변화를 받았다면 이런 근본적인 변화는 가져올 수 없었다. 시작부터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아성을 구축할 수 있었다. 바로 우리가 이런 진리를 추구하여야 한다. 다른 사람이 선 자리는 우리가 가서 가질 수 없다. 우리가 그 자리를 변화시킬 수 없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가서 우리 발로 밟는 그 곳은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주께서 여러분을 부르신다. 주께서 대한민국의 장래를 여러분의 어깨에 매어 주셨다. 믿음의 사람들이 곳곳에 필요하다.

서울 영동교회의 젊은 목사님은 목사, 사무원, 사찰 집사님의 기본 봉급을 똑같이 통일시켰다고 한다. 물론 당회장 수당 등의 차이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기본급은 똑같이 책정했다. 이러한 교회들이 생겨나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사는 사람들이다. 이것은 한두 사람의 얘기가 아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오고 있다.

코스타 1회 때 어떤 사람의 간증이다. "공부를 끝낸 다음 한국에 귀국할 예정이지만 한국의 구조적인 악 속에서 과연 어떻게 직장 생활을 할 것인가 하는 두려운 마음이 컸다. 그러나 여기 집회에 와서 수많은



믿음의 동지들을 보고, 이들이 귀국할 때까지 마음을 굳게 먹고 말씀대로 살고 있으면 동지들이 계속 와서 힘이 될 것이 아닌가 생각했다. 나는 여기서 내 인생의 새로운 소망을 안고 돌아간다.”

또 1회 때 마지막 사람의 간증이 지금도 기억에 남는다. “젊은 세력들이 지라고 있다. 파도가 뒤에서 밀어야 앞 파도는 물러간다. 지금 우리는 이전 사람들을 주시할 것이 아니다. 이 나라의 장래는 그 사람들에게 의해서 결정되지 않는다. 그들은 지나가는 사람들이다. 팔리가게 마련이다.”

그리고 여기 그 증거가 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아브라함은 이렇게 기도했다.

“하나님!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중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서는 의인 50명을 인해서도 이 명의 죄악을 사하겠다고 하였고 45명, 40명, 35명, 30명, 20명, 10명을 인해서도 이 명의 죄악을 사하겠다고 하셨다.

이 말씀 속에서 오늘의 한국 교회는 한국이 멸망치 않을 이유를 발견한다. 젊은 청년층 가운데 의인 10명만 있으면 된다. 정치인들에 의해서 이 나라가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다. 참으로 중요한 것은 한국이 망하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의인이 되지 못하는 데에 있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리하다. 의인 10명만 있으면 절대로 멸망시키지 않는다는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우리 나라 교육계가 썩었다는 말들을 많이 한다. 그런데 교육자 선 교회가 있어서 우리 교회에서 전도 폭발 훈련을 받고 있다. 16주 동안 복음을 공부하고 전도하는 훈련에 참석한 다음, 이분들이 복음으로 무장되어 다른 사람,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 학부

형들에게도, 학생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 처음엔 몇 사람으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500명이 훈련받고 있다.

학부모들이 자기 자녀를 잘 봐 달라고 돈 봉투를 갖고 선생님을 찾아왔을 때, 선생님은 그 봉투를 받아서 앞에 둔 다음에 이왕 오셨으니 아주 중요한 분을 소개하겠다고 한다. 당신의 생애에 또 당신의 자녀에게 제일 중요한 복된 소식을 가르쳐 드리겠다고 한 뒤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그러고는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에게는 영접 기도를 시키고, 영접치 않은 사람에게도 기도를 해준 다음 그 봉투를 돌려 드리면서 “과거에 나도 돈 받는 것을 좋아했으나 이제는 내가 믿는 이 예수님 때문에 돈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졌다. 마음은 참 감사하나 내게 더 풍성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돌려 드린다”고 한다. 이런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한국은 소망이 있다.

믿음의 사람들이 문자 그대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산다. 이런 일들이 점점 조용하게 확산되어 가고 있다. 이 세력들이 자라나면 한국은 달라진다. 아니 그것은 거대한 도덕적인 힘이다. 이것은 돈으로 해결이 안된다. 이것은 물리적인 힘으로도 안되는 진짜 능력이다. 모든 것을 능하게 하는 이 놀라운 영적인 능력을 한국 교회가 회복하게 된다.

그것은 청년들의 손에 달려 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진실로 의인이 있으면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더 큰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내가 너로 복을 주어 너로 복의 근원을 삼겠다고 하셨다. 아브라함이 복을 받는 것이 근기가 되어서 그 주변 사람들까지 복을 받는다는 말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복을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그 것이 근기가 되어서 주변 사람에게 복이 되는 진정한 축복이 따른다. 그러므로 진정한 축복은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받은 그것을 가지고 이웃을 향해서 어떻게 사용하는가 거기까지가 복이다.

한국 교회는 받은 것까지는 대단히 잘한다. 그러나 이제는 주어야 한다. 주는 사람은 주께서 넘치게 해주시길 않으면 줄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는 아무개 때문에 이 나라를 멸망시키지 않을 이유를 가지신다. 하나님께서는 요셉 한 사람을 축복하시려고 애굽을 7년이 나 축복하셨다. 그 영광이 내 삶을 통해서 우리 평생에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한국 기독교 전래 100년을 뒤돌아보면 포교의 단계를 넘어섰다. 말씀은 공부하는 단계가 한국 교회에 확산되고 있다. 그 말씀이 능력이 있고 그 말씀이 은혜이고 그 말씀이 권세인 삶, 그 말씀이 내 속에 역사 하셔서 구체적인 삶을 살게 만드는 이런 은혜가 우리 속에 이루어질 때 한국은 바뀔 것이다. 새 문화를 만들어 낼 것이다.

이것이 한국에서 가장 복을 받은 특권층이기도 한 대학생들과 이 시대의 청년들이 해야 할 일이다. 이 특권과 복을 자신들을 위해서만 사용한다면 그것은 자신을 도적으로 만드는 것과 같다.

청년 대학부가 바로 살 것을 전제하기 때문에 필자는 한국의 문체를 기독교가 책임질 수 있고 또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리고 꼭 해결해야만 한다. 그것을 짊어지고 갈 사람이 바로 심각한 교육 부재의 문제를 안고 있는 청년 대학부 층이다.

한국 교회의 현장 목회자들은 이들을 위한 전문 사역자와 지원을 아끼지 말아서 새 시대의 소망을 갖게 해야 할 것이다.

홍정길 / 다년 간 CCC 총무와 건국대 교목을 역임하면서 젊은이들에 대한 열정을 품어 온 그는 남서울교회를 개척, 사무하면서 회원복음화협의회 공동 대표와 평화통일을 위한 남북나눔운동 사무총장으로 있다.